

한국농어촌성주지사, 풍년농사 위한 통수식 개최

이지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9일(금) 18:25



© 성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8일 풍년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 흘려보내는 '2024년 경북대표 통수행사'를 성주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군과 군의회 관계자 포함 공사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 방덕우 비상임이사, 김우상 경북지역본부장, 지사운영대의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통수 선언 및 수문 개방을 진행했다.

이날 공사 전임직원은 깨끗한 농업용수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란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주호 물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리시설감시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도 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수지관리 등을 통해 관내 3천217ha 농경지에 양질의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